

2015.08.04. 총어학생회 포럼

세상을 다시 보는 페미니즘 기획단

매체팀 회의 안건지

1. 생활나눔

- 세미나와 MT가 끝나고 방학이 벌써 절반이 지나가고 수강신청이 코앞으로 다가왔네요! 다들 계획했던 대로 방학 알차게 보내고 계신지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지 나눠보아요 :)

2. 일정체크

일정	내용
8/4 (화)	기획안
8/11 (화)	초안
8/18 (화)	2안
8/25 (화)	완고 → 디자인 맡기기
9/1 (화)	교정 및 디자인 피드백
9/4 (금)	마지막 교정, 인쇄 넘기기
9/8 (화)	배포 시작

3. 매체 구성과 기획

(1) 주제/컨셉/방향성

(2) 디폴트로 넣을 내용

- 총어 소개, 여류 소개, 성평등센터 소개, 반성폭력 학칙 등 (성평등 가이드북 내용 중 일부)
- 기고/청탁 여부 (기간/ 원고료/ 누구)
- 여성주의자기방어훈련 후기

(3) 디자인과 인쇄

(4) 배포

4. 기획안 피드백

[기획안] 제목은 미정

소재	<비정상회담> 일부, 시사in 기사, 에우리피데스의 <바코스의 여신도들>, 내 성폭력 경험, 인터넷 조공팔 문화 등등?
기획의도	수업 때 냈던 글을 고쳐볼까 해요. 예인은 제 성폭력 사례 분석이고요. 제 사진을 포르노그래피로 만들었던 가해자만 보아도 여성에 대한 욕망과 혐오가 얼마나 맞물려 돌아가는지 알 수 있어서, 일단 그에 대해 쓰고 싶고요. 인터넷 커뮤니티에 "야한 팔"을 공유하는 문화가 남성 연대감이 여성의 성적 대상화를 통해 강화된다는 사실을 드러낸다는 점을 밝히고 싶고요. 약자 혐오를 즐기는 이런 심리는 거의 파시즘적인 것 같아서 그 예기도 하고 싶네요.
글의 종류	에세이? 문화 비평? 문학 비평??

글의 느낌 /분위기	딱딱한 편인 것 같습니다.	
주제	내 경험 -> 여성에 대한 욕망과 혐오를 통해 획득되는 남성성 -> 파시즘적인 대중 심리?	
자료조사	취재	
	칼럼	
구성		
인트로	'혐오주의'가 경제 타인가. 비정상회담 혐오주의 판과 시사in의 '여성 혐오하는 젊은 그대는?' 비판.	
본문1	욕망과 혐오, 분열증적 남성성. 에우리피데스의 '바코스의 여신도들' 하지만 다른 소설이나 영화를 가져와도 좋을 듯. 으헹헹헹 잘 모르겠다.	
본문2	내 경험 분석. 여성에 대한 혐오나 욕망 속에는 여성이 없다. 질문이 목적인가. 포르노그래피의 공유가 목적인가? 이 "조공팔" 문화는 둘 다를 충족시킨다. "조공팔"을 이용해 자신의 게시물을 더 많은 사람이 보도록 "광고"를 하는 이 모습은 여성의 세슈얼리티를 끝없이 전시하며 상품을 팔아치우는 이 자본주의적이며 가부장적인 사회의 축소판이다. 이때, 상품과 함께 여성 역시 상품이 된다. 또한 "조공팔" 문화는 포르노그래피를 공유하며 서로 감성 댓글을 다는, 남성이 주류인 인터넷 커뮤니티의 대표적인 놀이 문화의 한 변형이라 할 수 있다. 이때 여성의 몸은 "조공"할 수 있는 것이다. 물건화된 여성의 몸은 남성의 재산이다. 그들은 서로 포르노그래피를 공유하며 즐겁게 남성 연대감을 표현한다.	
본문3	"적자생존", 즉 강한 남성이 살아남는다는 것은 정복자, 승리자가 항상 옳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이 여성이 남성의 것으로 당연시되는 사회의 이데올로기이다. 미즈가 말하듯, "이런 종류의 과학을 수용하는 이들은 파시즘이나 제국주의도 수용할 것이라는 점을 우리가 알지 못하겠는가?"	
결론	잘 내려봅시다...	
기타사항		

[기획안] 제목은 미정

소재	남만적 사랑, 연애 관계 내에서의 권력 관계, 고정적인 성역할.	
기획의도	한국 사회 혹은 현대 사회에서 지나칠 정도로 남만화 되어있는 사랑, 연애라는 공간, 관계 내에서 개인이 경험하게 되는 권력 관계와 왜곡된 연애상, 성역할을 살펴보고 고찰해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보고 싶습니다.	
글의 종류	에세이와 칼럼 중간 정도.	
글의 느낌 /분위기	불편한 이야기를 편하게 할 수 있는 분위기. '글을 읽고 난 후에 이런 사람도 있구나. 이 사람 말이 진짜 맞아? 라는 생각이 조금은 오래 남아 있으면 좋겠다.'	
주제	연애 관계 내에서의 비틀린 권력 관계, 남만적 사랑과 연애 관계 내에서의 성역할.	
자료조사	위재	실제 연애 경험, 연애 관계에 대한 생각을 묻는 인터뷰가 필요할 가능성 있음. 노래 가사, 드라마, 영화 등 직관적으로 의미를 드러내 보일 수 있는 자료 수집 필요
	갈럼	
구성		
인트로	권력과 남만의 사전적 의미 살펴봄. 협의의 권력이 아니라 일상적인 권력을 지칭하며, 보통 우리가 피부로 느낀다고 표현할 만한 권력 관계를 살펴보자. 남만이라는 컵데기 속에서 썩어가는 사랑(가족, 가정이라는 단어도 비슷하다고 언급할 수도.) '오 나의 귀신님' 컵체 사진 삽입 - 전복되어있는 성관계 혹은 정조 관념에 대한 성역할, 위치 소개	
본문1	연애 관계에서 소위 '쿨'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특이한 권력 관계. (미안해요 고마워요 즐거웠어요, 산뜻하게 헤어져요, 질척이지 말고, in 자우림 [카니발 아무르]) 가장 진실하고 순수하다고 여겨지는 사랑, 연애라는 공간을 비틀고 썩게 만드는 외부 요인들 - 경제력, 외모, 지위 등 개인이 가지는 자본에 의한 권력 관계. 일당, 나쁜 남자 등을 이상화, 남만화 하는 사회 분위기 상대방을 위한 감정 노동, 정성과 자기 학대 사이에서의 줄다리기	
본문2	권력 관계를 왜곡, 심화시키는 1) 남만적 사랑이라는 프레임 - 사랑은 원래 그런거야. 연애 관계는 개인의 문제이고, 있는 애들의 불명일뿐. 2) 연애 관계에서 기초 세팅으로 여겨지는 고정적인 성역할 - '남성은 항상 자신감에 차서 여성을 리드해야해!', '여성이 먼저 성관계를 원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	
본문3	(여력이 된다면) 이런 얘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한번 들려줘보았습니다. 누가 어떤 반응을 하는지, 왜 그런 반응을 하는지, 나름의 근거(공부가 필요)에 기반해 그 이유나 맥락 설명. 이렇게 다양한 반응 속에서 주제에 대한 여러 관점을 좀 더 깊이 살펴봄.	

결론	당연하지 않은 일상적인 권력과 왜곡되고 지리한 인식들이 아직까지 우리 내외에 차고 넘친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불편하게 사는 것, 권력을 느끼는 사람이 유별나지 않은 세상이 오면 좋겠다. 이러한 고민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한명쯤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것도 나쁘지 않잖아요?
기타사항	결론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더 필요할 듯. 가사, 영화, 드라마 대사 등을 인용하고 인터뷰를 삽입하는 부분에 대한 조정. 관련된 이론 혹은 근거들을 발췌할 학술 자료 공부 필요.

[기획안] 가려진 몸 재현하기 - 여vs남이 아닌 여&남으로

소재	신자유주의시대의 몸 재현	
기획의도	현재 나타나고 있는 몸에 대한 주류적 관심사는 '몸 가꾸기'이다. 몸 가꾸기의 핵심은 결국 남에게 선택받을 가능성을 높임으로서 스스로의 선택권을 넓히려는 전략에 있다. 여기서 '선택받는 몸'이란 더욱 남성이라 생각되는 몸과 더욱 여성이라 생각되는 몸으로 인정받은 몸을 의미한다. 같은 맥락에서 모든 사람들을 이극단화된 상으로 내몰리며 아름다운 남매가 서로를 선택하는 모습만을 절대화하여 재현하는 동시에 다른 모습들은 재현의 영역에서 배제시킨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주의를 중심으로 외모평가를 그만두고 몸의 다양한 상을 형성해야 함을 주장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으나 "남성들은 얼굴 예쁘고 몸매 좋으면 한장한다." "여성들도 잘 생기고 몸 좋은 남자에 더 많은 관심가지면서 피해자 코스프레 하고 있다." 라는 여성 vs 남성의 양상이 무한 반복될 뿐 깊은 논의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무엇이 우리들의 몸을 가리고 있는지 밝혀 여성 vs 남성이 아닌 여성 & 남성으로 나아감으로서 가려진 몸이 재현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여성과 남성뿐만 아니라 그 사이에 놓인 수많은 젠더정체성이 재현될 수 있도록 다양한 몸의 상이 필요함을 보이고자 한다.	
글의 종류	원인 분석, 방법 모색, 고민하는 글, 제안하는 글	
글의 느낌 /분위기	진지한 분위기, 여성과 남성이 모두 공감할 수 있는 느낌으로(까지는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T_T 잘 안 된다면 하고자 했던 말을 잘 담는 것으로 선회를...)	
주제	신자유주의 하에서 결정되는 이상적의 몸과 그 이상적 상의 해체를 통한 가려진 몸 재현	
자료조사	위재	X, 필요시 인터넷을 통한 사례 수집
	갈럼	필요한 글들을 열심히 찾아볼게요 TTTT
구성		
인트로	현재의 한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몸 가꾸기' 열풍을 제시하고 그 양상이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지 제시한다.	
본문1	인트로에서 제시한 '몸 가꾸기' 열풍이 왜 등장했는지 원인을 밝힌다. 20세기 말	

	신자유주의라는 형태로 재등장한 자유주의가 우리의 삶을 어떤 식으로 변형시켰는지 밝히며 현재의 몸 가꾸기의 모습이 왜 나타나고 있는지 설명한다.
본문2	인트로에서 제시했던 몸 가꾸기의 양상을 다시 끌어내어 '남성'이라는 상과 '여성'이라는 상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공고화되는지를 밝히고 이것이 만들어내는 '몸 가리기'라는 문제를 보인다. 또한 이러한 문제에 대해 다양한 몸의 상에 대한 논의를 소개한다.
본문3	다양한 몸의 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에서 비롯된 외모평가에 대한 논란 속에서 갈등만을 반복하는 여성과 남성의 모습에 대한 고찰을 통해 여성과 남성이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한다. 또한 다양한 몸의 상을 만드는 것으로서 이상적인 상에 가까이 가지 못한 수많은 가려진 몸들이 다시 재현될 수 있음을 밝힌다.
결론	기존의 여성과 남성 사이에 발생해왔던 갈등이 실상 서로의 이야기가 갈등을 인지하지 못한 채 달려온 허구적인 평행선이었음을 밝힌다. 같은 맥락에서 이 글에서 언급한 외모평가에 대한 논란에서의 갈등을 해결함으로써 여성과 남성 모두 '더 여성스러운 몸'과 '더 남성스러운 몸'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으며 몸에 대한 상상력이 다양해질수록 기존의 몸의 모습들에 갇히지 않고 다양한 정체성의 몸들이 스스로 자신을 드러내고 동시에 재현될 수 있음을 주장한다. 결과적으로 다양한 몸의 상을 만드는 일에 동참하도록 제안하며 글을 마무리한다.
기타사항	- 제가 작성한 내용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러 전문적 자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혹시 생각나는 책이나 칼럼이 있으면 무한 추천을 부탁드립니다. ** (덜컥 편하게 가려는 속셈 아님...이미 들켰나...ㅋㅋ) - 글이 여러 내용을 포괄하게 될 것 같은데 혹시 연결이 잘 되지 않을 것 같거나 빼도 좋을 것 같은 내용이 있다면 언제든 비판해주세요. - 글재주는 별로 없지만 열심히 써보겠습니다.

[기획안] 글 제목-미정

소재	성을 다룬 과학적 논문들	
기획의도	처음에 제가 하고 싶었던 것은 성에 대한 고정관념을 반박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들을 제시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되도록 실험을 한 논문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논문들을 찾을 수 있을지 약간 걱정이 되네요. 오히려 고정관념을 지지하는 논문들이 지배적이면 좀 난감할 것 같네요. 잘 찾아보긴 할 건데...흠흠 ㅠㅠ 글에서 다룰 주제는 아직 미정이에요. 성 고정관념을 반박하는 데에만 집중을 할지, 아니면 다른 이슈들도 같이 소개할지, 아니면 아예 주제를 다른 이슈들로 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가 염두에 두고 있는 다른 이슈는, 성 소수자나 젠더화 되는 과정 등등입니다.	
글의 종류	논문 리뷰 느낌?	
글의 느낌 /분위기	무겁지는 않을 것 같아요	
주제	성에 대한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는, 혹은 기존의 알고 있던 것에 대한 과학적 증거를 확인할 수 있는 글	
자료조사	취재	논문을 찾기

	칼럼	
구성		
인트로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성 고정관념에 대한 성찰	
본문1	논문 1	
본문2	논문 2	
본문3	논문 3	
결론	이렇다고 합니다.	
기타사항	흥미로운 논문을 찾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기획안] 내가 고자라니!

소재	무성애자
기획의도	동성애/양성애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논의가 되는 것 같은데 무성애에 대해서는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
글의 종류	설명하는 글
글의 느낌 /분위기	진지한 분위기
주제	무성애자란 무엇인가?
자료조사	원재

	칼럼	http://www.huffingtonpost.com/2013/06/17/asexuality-the-x-in-a-sexual-world_n_3444417.html 미국 허핑턴 포스트
구성		
인트로	무성애자란? 무성애자에 대한 정의	
본문1	무성애는 장애인인가? 과학적으로 살펴보는 무성애	
본문2	무성애자들의 사랑, 연애, 섹스	
본문3	무성애자들에 대한 차별, 추행	
결론	방황하는 무성애자들이여 모여라! 무성애자들의 미래	
기타사항	허핑턴 포스트의 글을 많이 참고할 것 같은데 허핑턴 포스트에 먼저 허락을 받아야겠죠?	

[기획안] 권력관계와 페미니즘(가제)

소재	페미니스트의 존재 의미, 역할 등
기획의도	예전에 왜 페미니즘이란 단어가 존재하는지에 대해 질문을 받은 적이 있다. 단순히 페미니즘을 여성 우월주의, 여가부의 지지자라고 알게 되는 잘못된 사회 현상 때문이다. 그런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다보면 자신도 모르는 여성혐오나 성적 불평등에 대한 생각을 내재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글을 통해 페미니즘의 정확한 정의와 내가 생각하는 페미니스트, 그리고 여성혐오를 권력관계의 측면에서 다뤄보고자 한다.
글의 종류	아마 논설문 형식.
글의 느낌/분위기	전체적으로 사례 중심과 의견 중심으로 진행하지만 가독성이 좋은 방향으로 글을 쓰고 싶습니다.
주제	페미니스트는 사회나 사람사이에서 필연적으로 존재하는, 미시권력의 젠더상의

악자에 대한 무의식적 인식을 꼬집어 주는, 성적 평등을 지향하는 사람들이다.		
자료조사	위재	google.com
	칼럼	여성혐오에 대한 칼럼들/ 미셀 루크의 성의 역사, 여성혐오를 혐오한다, 해결과 사르트르의 권력개념의 기초를 참조할지도...
구성		
인트로	많은 사람들이 여가부와 페미니즘을 동일시하고 페미니즘의 필요성에 의문을 갖는다. 이미 상당한 성 평등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다.(사례중심)	
본문1	나는 여성 혐오가 아닙니다? 여성 혐오란 무엇인가 - 여성혐오가 생겨난 배경, 젠더질서 상의 여성혐오의 재정의 - 우리 사회 속의 여성혐오현상(다른 분이 이미 다루셨기에 가볍게 다루고자 합니다.)	
본문2	시선을 통한 타자의 대상화로 인해 권력관계가 성립된다. - 이 사회에서 우세적으로 시선의 대상이 되는 젠더는? - 어벤저스의 인터뷰(여성과 남성에게 대표적으로 묻는 질문의 발전) - 대상화된 타자는 스스로 자기혐오를 갖게 된다는 점에서 본문 1과의 연결	
본문3	페미니스트란? - 이런 사회와 사람사이에서 권력이 존재 한다면 젠더질서에서도 권력이 존재할 것이다. 이를 꼬집어 주는 사람이 페미니스트라고 생각한다. - 페미니스트의 재정의, 역할	
결론	서로 다른 젠더를 가진 사람과 사람사이에서도 서로 다른 젠더상의 권력관계가 존재한다. 또한 사회상에서도 큰 젠더질서상의 차별이 존재한다. 무의식적으로 이를 꼬집어 남성우월, 여성우월이 아닌 성적 평등을 지향하는 것이 젠더질서상의 페미니즘의 역할이다.	
기타사항	사회의 발전으로 인해 남성과 여성 개개인의 관계에서는 여성이 미시권력의 위치에 서는 일도 찾아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언급하고 싶네요.	

[기획안] (제목 미정)

소재	'백합들' 애니메이션에서 다루어지는 여성 캐릭터
기획의도	기존의 애니메이션에서 여성 캐릭터는 단순히 '남성의 보호본능을 자극하는 연약한 존재'라는 남성 중심의 판타지를 확대/재생산하는 역할, 혹은 자신의 여성성을 밀쳐내고 명예남성이 되어 강한 존재로 발돋움하는 역할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소녀혁명 우테나', '마법소녀 마도카☆마기카', '유리쿠마 아라시' 등의 소위 '백합들', 여성 캐릭터 간의 유대와 사랑에 초점을 맞추며 남성 캐릭터가 배제되어있는 환경에서는 다르다. '백합들'은 단순한 남성들의 레즈비언 판타지로 소비되는 양상에서 벗어나 새롭게 입체적인 여성 캐릭터 묘사를 보여주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차이를 분석하고, 이 현상의 긍정적인 면, 그리고 한계를 알아보고자 한다.
글의 종류	분석하는 글..?

글의 느낌 /분위기	- 애니메이션을 소재로 다뤘지만 너무 가볍게 읽히지만은 않게 진지한 어조로 - 언급된 애니메이션을 본 사람은 공감하고 더 재미있게 읽을 수 있도록	
주제	'소녀혁명 우테나', '마법소녀 마도카슈마기카', '유리쿠마 아라시' 등 소위 '백합물'이라는 장르에 포함되는 애니메이션에서 나타나는 여성 캐릭터의 묘사와, 이러한 장르에서 나타나는 동성애 코드와의 연관성, 기존의 이성애/남성 중심적이던 캐릭터 묘사와의 차이점 등	
자료조사	취재	X
	칼럼	맥을 같이하는 해당 애니메이션들의 리뷰나 관련 글을 열심히 찾아볼게요!
구성		
인트로	기존 애니메이션(로맨스물, 소년만화 등)에서의 평면적인 여캐 묘사에 대한 지적, '백합물' 장르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설명.	
본문1	사례 1) '소녀혁명 우테나' 동성애 코드, 주인공인 '텐조 우테나'의 의도된 남성성과 결말부에서의 반전, 제목인 '소녀혁명'의 의미 등.	
본문2	사례 2) '마법소녀 마도카슈마기카' 기존의 '마법소녀물'에서 등장하는 별도의 남성 주인공이 없(거나 여성 캐릭터로 대체되어 있음)으로써 발생하는 여성 캐릭터 묘사의 차이, 타 '마법소녀물'의 캐릭터들과의 인물상 비교, '미키 사야카'의 경우 유일하게 이성애적 코드에 묶여있는 캐릭터인데 이 캐릭터의 묘사가 어떤 식으로 표현되는지.	
본문3	예시 3) '유리쿠마 아라시' 작품 전면에 내세워져 있는 동성애 코드와 주인공 3인방의 캐릭터성에 대한 분석, 기존의 이성애를 다루었던 애니메이션에서 다루어진 여성 캐릭터의 캐릭터성과의 비교, 나타나는 차이점과 동성애 코드 간의 연관성.	
결론	기존의 작품에서 여성 캐릭터는 보통 예외인 남성 캐릭터의 연애 대상 등 남성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그려지고 필연적으로 평면적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남성 캐릭터가 배제되어있는 '백합물'의 세계 안에서 여성 캐릭터는 훨씬 주체적이고 입체적으로 그려진다.	
	하지만 이는 남성 캐릭터를 완전히 배제했을 때라는 한정된 환경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미키 사야카) 따라서 기존의 세계관에서도 여성 캐릭터의 주체성이 확보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언급.	
기타사항	- 너무 수박 겉핥기 식으로 이야기하게 될까봐 겁이 나네요...ㅠㅠ 해당 애니를 보신 분이 혹시라도(!!!) 계시다면 피드백 주시면 감사합니다! - 글을 쓰다가 사례를 추가/삭제/변경하거나 '백합물'에서만 그치지 않고 다른 장르까지 나아가서 사례를 들게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아직 완전 초안이라서 많은 수정이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기획안] "이것은 왜 폭력이 아닌지 말인가?"

소재	성폭력
----	-----

기획의도	성폭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일상적이고, 빈번하게 일어나지만, 그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는 비난받을 만한 폭력이라는 것이 피해자와 가해자 그리고 제 3자의 관계에 따라 다르게 규정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피해자와 가해자, 그리고 제 3자들이 감정적, 정치적으로 복잡하게 얽혀있는 경우, 이 성폭력 사건은 '온전히' 처리될 수 없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듯 마치 일상의 한 부분처럼 가려진 성폭력을 우리가 얼마나 간과하는지, 혹은 묻어두는지 지적하고 이에 대한 비판점들을 성찰하고자 합니다.	
글의 종류	분석, 설명	
글의 느낌 /분위기	기본적으로 비판적인 어조입니다.	
주제	"이것은 왜 폭력이 아닌지 말인가" - 성폭력을 성폭력이라고 외치지 못하는 현실 지적	
자료조사	취재	기사와, 책의 사례 참고
	칼럼	신문
구성		
인트로	최근 회자가 된 사건들을 나열하며, 이것이 일상적이고 개인적의 윤리적 결함으로만 치부되는 현실과 사실은 그 안에서 보이지 않게 작동되는 구조와 권력 관계가 있음을 주장하며 이를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3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다루어보고자 합니다.	
본문1	우리사이에 어떻게...? - 본문 1에서는 연인 관계, 혹은 친밀한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성폭력을 중심 내용으로 하여 이들 관계에서 폭력이 어떤 방식으로 다뤄지는지, 왜 그런지 다루려고 합니다.	
본문2	정의를 말하면서 어떻게...? - 본문 2에서는 민주 사회를 꿈꾸었던 운동권, 진보진영에서 발생한 성폭력의 역사를 짚으며 그 모순에 대해 지적하고자 합니다.	
본문3	말는다면 어떻게...? - 본문 3에서는 종교진영에서 일어난 성폭력 사건을 중심 내용으로 하여, 신앙의 이름으로, 혹은 집단이 어떻게 성폭력 사건을 묻어두려 했는지 짚어보고자 합니다.	
결론	이들 종합하여, 성폭력이라는 것이 사적인 관계적 경험으로 치부되는 현실을 다시 한 번 짚고, 나아가야 할 방향성 제시.	
기타사항	엄기호씨 "이것은 왜 청춘이 아닌지 말인가" 제목 맞는데 안 되면 다시 고려해보겠습니다.	

[기획안] Feminism in Movies

소재	feminism in movies	
기획의도	3주차 세미나, 영화로 보는 성역할과 여성의 주체성 이후에 페미니즘 영화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보고 싶어서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화라는 대중적인 매체를 통해 페미니즘을 설명하면 독자에게 조금 더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글의 종류	페미니즘 영화 소개, 분석, 영화를 통해 페미니즘이 가진 다양한 면모들을 도출	
글의 느낌 /분위기	객관적 정보(영화 소개), 영화 관련 분석글 인용(영화 평론글), 그에 대한 필자의 주관적인 생각.	
주제	페미니즘 영화를 통해 본 페미니즘의 다양한 모습	
자료조사	취재	
	칼럼	
구성		
인트로		
본문1		
본문2		
본문3		
결론		
기타사항		

[기획안] 미정

소재	한국식 페미니즘	
기획의도	인터넷에서 페미니즘에 대해 실천할 일이 생기면 꼭 '페미니즘은 반대하지 않지만 한국식 페미니즘이 싫다.' 라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에게 대해 한국식 페미니즘이 뭐냐고 물어보면 여가부, 더지페이, 김치녀 등의 단어만 읊어대지 누구도 정확히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한국식 페미니즘'을 하는 것인지, 그게 왜 페미니즘이라고 부를 수 있는지 설명하지 않았다. 물론 페미니즘은 각 나라에 소개된 후 다양한 모습을 보이며 발전해나간다. 그러나 '한국식 페미니즘' 운운하며 비판하는 사람들은 실제 페미니즘에 관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요소들만 모아둔 '한국식 페미니즘'이라는 모호한 유령을 가져다두고 비난을 위한 비난을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따라서 일부 사람들이 주장하는 '한국식 페미니즘'이란 무엇인지, 이 논리의 어떤 점이 잘못되었는지 짚어보고 페미니즘과 페미니스트에 대한 오해를 풀고자 한다.	
글의 종류	분석글	
글의 느낌 /분위기	너무 공격적인 글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 같아요.	
주제	한국식 페미니즘에 대한 탐구와 페미니즘 오해 풀기	
자료조사	취재	x
	칼럼	(칼럼은 아니지만) 위키, 여성가족부와 여성단체 홈페이지, 논문, 기사 등을 참조할 예정입니다.
구성		
인트로	(자료 첨부-웹툰 '마음의 소리' 중 소개팅 상대로 나올 최악의 여자 특징으로 페미니스트가 들어간 장면) (발해-김태훈 '15보다 무뇌아적 페미니즘이 더 위험해요') 한국 사회에서 페미니즘과 페미니스트가 부정적인 위암스를 지닌 채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지적. 이런 페미니즘은 기존 페미니즘이 아닌 부정적인 '한국식 페미니즘'으로 칭해짐. 한국식 페미니즘에 대해 알아보고 페미니즘에 대한 오해를 풀고자 함.	
본문1	'한국식 페미니즘'이란 무엇인가? (자료 첨부-남성부 닷컴'에 올라온 '한국식 페미니즘 요약') 즉 이들이 생각하는 한국식 페미니즘이란 '좋은 것은 여자가, 나쁜 것은 아들' 정도로 요약 가능함. 그 예로 결혼 시 남성의 경제적 부담이 더 큰 것, 연인이 식사 시 남성이 식사비를 다 내는 것, 여자들은 군대 안 가는 것, 여성 가족부가 사소한 일에 예산을 낭비하며 쓸데없는 일을 한다는 주장을 들 수 있음. 한국식 페미니즘에 대한 설명.	
본문2	남성이란 이유로, 여성이란 이유로 -성평등주의로서의 페미니즘 정의 소개, 즉 남성이라는 이유로 경제적 부담을 짚어지는 것은 페미니즘이 주장하는 것이 아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에서 남성이 경제적 부담을 과도하게 짚어지는 이유를 남성과 여성의 임금 격차, 여성의 경력단절과 직장 내 차별로 드러나는 사회 구조적 문제와 경제 주체로서의	

	남성상을 성립한 전통적 유교 사회의 영향을 들어 분석.
본문3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 이름, 여성 가족부 -여성 가족부가 하는 일, 그간 벌여온 사업, 여성 가족부에 대한 오해
결론	"페미니스트라는 이름은 '혐오의 대상으로서의 타인' 기표'이며, 불안스러운 것은 뭐든 '페미니즘' 안에 들어갈 수 있다" (손희정 여성문화이론연구소 편집위원) '한국식 페미니즘'이라는 명명으로 인해 그 동안 많은 비난과 조롱을 받아온 페 미니즘이라는 단어. 이제 페미니즘에 대한 오해를 풀고 그 본질을 들여다봐야 할 차례이다.
기타사항	군대나 여성 가족부같이 논란의 여지가 많은 요소들이 많아 신중히 접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회 구조적 문제에 대해 다루는 부분은 합부로 결론 내리기 쉬운 내용이 아닌 만큼 폭 넓은 자료조사와 많은 공부가 필요하겠죠. 또 글이 잘못된 행태에 대해 무조건 옹호적인 뉘앙스를 띠지 않게 조심해야 합니다.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글을 써 가며 수정할 계획입니다.

[기획안] 글 제목

소재	페미니즘 소설에 대한 소개 및 비평
기획의도	본인이 그동안 읽어왔던 책들 중 페미니즘을 주제로 담고 있는 소설들을 소개함 으로써 페미니즘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관련 지식을 제공함
글의 종류	설명문
글의 느낌 /분위기	가벼운 구어체, 친구가 들려주는 책 이야기 같은 느낌
주제	소설을 통한 페미니즘 입문
자료조사	위제 칼럼
구성	
인트로	페미니즘이란 무엇인가?
본문1	페미니즘 소설에 대한 간략소개, 예시설명, 두 작품에 대한 소개
본문2	핑거스미스 소개 및 비평

본문3	프라이드 그린 토마토 소가 및 비평
결론	상기한 두 책에서 얻을 수 있는 페미니즘적 가치, 본인이 느꼈던 깨달음
기타사항	책 정보 간략하게 실을 예정

[기획안] 글 제목

소재	문화상품 속에서 그려지는 (남성) 동성애자의 모습들
기획의도	이미 동성애자의 권리를 논하는 것은 진부한 문제처럼 비춰지는 듯하다. 그도 그 럴 것이 이미 (남성) 동성애자를 다루는 문화상품들은 범람하고 있다. (오직 남성 동성애자만 재현되며, 다른 성소수자는 없는 존재로 취급된다.) 문화 상품 속에서 동성애를 다루는 지금의 방식은 한 편으로는 동성애의 가능성을 제한하고 있다. 여전히 문화 상품 속, 현실 속 성소수자에 대한 이해는 부족한 상황이다.
글의 종류	문화비평
글의 느낌 /분위기	그냥... 과제글 느낌..
주제	문화상품 속에서 그려지는 동성애의 모습과 한계를 바로보자.
자료조사	위제 칼럼
구성	
인트로	동성애자가 등장하는 교내 연극을 했을 때의 에피소드
본문1	뮤지컬 속, 수용되고 칭송받는 (남성) 동성애의 모습과 한계

본문2	드라마 속, 브로맨스, 남장 여자였거나 사라지는 동성애의 모습과 한계
본문3	커밍아웃한 유일한 방송인인 홍석천이 "웃기는", 동성애"자"로 다뤄지는 모습과 한계
결론	성소수자에 대한 이해와 좀 더 정당한 재현은 여전히 당면하고 있는 과제이다.
기타사항	

[기획안] 수저 한 벌

소재	정상가족과 비정상가족? ...그게 중요해?	
기획의도	사회가 규정하는 소위 '정상가족'으로 살면서 그건 아무렇지 않은 것이라 생각 해왔지만, 우리 가족도 '정상'이란 걸 열망해왔다는 걸 문득 느낀 개인적인 경험에서 출발해 '정상'에 얽매인다는 것을 성찰할 수 있는? 혹은 그것에서 자유로워 지자는 글을 쓰고 일단 생각에서 기획하게 되었어요.	
글의 종류	에세이	
글의 느낌 /분위기	가볍고 고백적인 글이 될 거 같아요.	
주제	'정상'이라는 프레임에 너무 연연하지 말자	
자료조사	취재	사실상 이혼 상태인 가정에서 20년을 살다 그걸 이제 알게 된 걸 저에게 털어냈던 친구를 인터뷰해볼까 고민 중이에요
	칼럼	...어떤 칼럼을 참고해봐야 할지 모르겠네요. 공지영의 소설 「즐거운 나의 집」을 한번 참고해볼까 생각 중이에요.
구성		
인트로	식사 시간, 수저를 놓다 평소 쓰던 것과 유일하게 다르게 생긴 수저 한 벌을 어머니 편에 놓았을 때 돌아온 대답 "그건 네 수저잖아." " ? 왜 이게 내 건데?" "뭘 세삼스레 그래, 그거 네 거잖아. 물렸어?" "진짜? 아니, 근데 이게 왜 내 거나 니까?" "그야, 네 아버지 쓰던 거니까."	
본문1	이토록 정상에 얽매이는 우리들, 사회가 요구하는 정상가족의 모습을 꼬집어본다.	

본문2	정상가족의 이면, 정상가족이란 걸 지키기 위해 너무 많은 걸 희생하고, 참고 있진 않나요? + 친구 인터뷰(가능하다면)
본문3	다양한 가족의 모습(대안가족?) 굳이 정상가족이어야만 해? 그게 아니라도 행복할 수 있잖아? + 공지영 「즐거운 나의 집」 참고
결론	수저 한 벌, 단정해보이죠. 하지만 우리 가끔 상에 떨어진 건 손으로 집어먹기도 하고 포크수저를 쓸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우리 '정상'에 그렇게 연연하지 않아도 될 거 같아요.
기타사항	

[기획안] 글 제목

소재	성적 자기 결정권	
기획의도	수많은 사람들이 한국사회는 남녀평등한 시대라고 말한다. 오히려 남성들이 역차별받는 사회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실상을 살펴보면 과연 그럴까? 오늘날 한국사회의 성차별과 성폭력의 실상을 파헤치고 문제의식을 제기하려 한다.	
글의 종류	자유	
글의 느낌 /분위기	쉽게 읽히지만 마냥 가볍지만은 않은 글이었으면 좋겠다.	
주제	한국사회의 성차별, 성폭력에 대한 인식 비판	
자료조사	취재	뉴스 기사
	칼럼	관련매체들을 찾아볼 예정
구성		
인트로	한국 사회의 여성혐오 기사, 사례 등을 소개	
본문1	여성혐오를 기반으로 하는 성차별 문제	

본문2	성폭력 문제
본문3	
결론	비판과 사람들의 의식변화 촉구
기타사항	지금 원가 굉장히 뒤죽박죽인 느낌이라 다시 좀 더 깔끔하게 다듬고 세분화하는 과정이 필요함.

201211

[기획안] 어디에나 있고, 아무데도 없다. 여성혐오

소재	온라인 상의 (한국)여성혐오 현상	
기획의도	한국인(男)-한국인(女) 결혼 비율이 92.4%(2014년 기준)인 대한민국. 이처럼 겉으로 봤을 때는 서로에 대한 호감만 가득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현재 온라인에서 나타나는 한국여성혐오 현상은 통계와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 나타나고 있는 여성혐오 현상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이 갈등을 풀어나갈 수 있을지 차근차근 알아보자.	
글의 종류	분석!	
글의 느낌/분위기	「그것이 알고 싶다」식으로 하나하나 알아보는 느낌!	
주제	온라인에서 나타나는 (한국)여성혐오 현상과 그 이유를 알아보자. 그리고 이 갈등을 풀어나갈 근본적인 방안을 궁리해보자.	
자료조사	취재	google.com
	칼럼	google.com
구성		
인트로	김치녀, 원장녀, X술아지, 삼일한, 보적보 등 온라인에서 여성혐오, 특히 한국여성혐오 관련 용어를 빈번하게 볼 수 있다. (여성혐오 현상)	
본문1	한국남성들이 한국여성을 혐오하는 이유1 (조사)	

본문2	한국남성들이 한국여성을 혐오하는 이유2 (조사)
본문3	한국남성들이 한국여성을 혐오하는 이유3 (조사)
결론	성 갈등을 풀 해결책!! (조사)
기타사항	google뿐만 아니라 다양한 채널을 통해 많은 이들의 의견을 읽겠습니다. 성 갈등은 민감한 사항이므로 남성이든 여성이든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게끔 균형잡힌 글을 쓰겠습니다.

여세 카지노...

5/16

목요일 세미나 발제. ☺ 일요일 일종 취소 (ㅠ.ㅠ)
토요일 6시에 MT... 오후 2시...

2015.08.04. 총여학생회 포럼
세상을 다시 보는 페미니즘 기획단
매체팀 회의 안전지

시강판

MT에... 모임... .. 오랜만.

금요일 MT...

동인- 내일모레 싱가포르.

농악

화목

공연 연습.

1. 생활나눔

- 세미나와 MT가 끝나고 방학이 벌써 절반이 지나가고 수강신청이 코앞으로 다가왔네요! 다들 계획했던 대로 방학 알차게 보내고 계신지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지 나눠보아요 :)

다양한 콘텐츠 활동

2. 일정체크

해인-전라도 MT.

지서분하고 시그러운 노래.

고사랑 얘기를... 해와라...

심리학 과목!!

일정	알바구했다. maple story.	내용
8/4 (화)		기획안
8/11 (화)		초안
8/18 (화)		2안
8/25 (화)		완고 → 디자인 말기치
9/1 (화)		교정 및 디자인 피드백
9/4 (금)		마지막 교정. 인쇄 넘기기
9/8 (화)		배포 시작

근거의도
가짜서
작성하면

현판정

매체 자체에
기승전락 있었으면

전체적 주제나 컨셉을
정하고 기획안 쓰면
좋았을것같다.

전반적으로 1도면에서는 생각
문제, 원고등에 대한 도면

드러내다.

드러내다.

Banana.

3. 매체 구성과 기획

(1) 주제/컨셉/방향성

(2) 디폴트로 넣을 내용

- 총여 소개, 여휴 소개, 성평등센터 소개, 반성폭력 학칙 등 (성평등 가이드북 내용 중 일부)

- (기고/청탁 여부) (기간/ 원고료/ 누구)

- 여성주의자기방어훈련 후기

(3) 디자인과 인쇄

(4) 배포

노명-영라동아리.

매체팀

너무 큰일이 아닐까.

박명리. 명리관에서 자는

심어주기.

해신판

성찰적... 내 얘기를 하느건아님.

위험한 내용

귀여운 저런 분들이 같이 있다면!

충분히! 얼마큼 써야되나...

세미나를 하면서 알게 된 인사이트 위주로?

공통점이 세미나를

기획하는 동업자들이
이거 198.

어떤 느낌이냐면 / 기획단인데.

두달이. 자는

4. 기획안 피드백

[기획안] 제목은 미정

다양한 주제!!

sexuality

소재	<비정상회담> 일부, 시사in 기사, 에우리피데스의 <바코스의 여신도들>, 내 성폭력 경험, 인터넷 조공짤 문화 등등?
기획의도	수업 때 냈던 글을 고쳐볼까 해요. <u>메인은 제 성폭력 사례 분석이고요</u> 제 사진을 포르노그래피로 만들었던 가해자만 보아도 여성에 대한 욕망과 혐오가 얼마나 맞물려 돌아가는지 알 수 있어서, 일단 그에 대해 쓰고 싶고요. 인터넷 커뮤니티에 "야한 짤"을 공유하는 문화가 남성 연대감이 여성의 성적 대상화를 통해 강화된다는 사실을 드러낸다는 점을 밝히고 싶고요. <u>약자 혐오를 즐기는 이런 심리는 거의 파시즘적인 것</u> 같아서 그 얘기도 하고 싶네요.
글의 종류	에세이? 문화 비평? 문학 비평??

글의 느낌 /분위기	딱딱한 편인 것 같습니다.	
주제	내 경험 -> 여성에 대한 욕망과 혐오를 통해 획득되는 남성성 -> 파시즘적인 대중 심리?	
자료조사	취재	
	칼럼	
구성		
인트로	'혐오주의'가 경제 타인가. 비정상회담 혐오주의 편과 시사in의 "여성 혐오하는 젊은 그대는?" 비판.	
본문1	욕망과 혐오, 분열증적 남성성. 에우리피데스의 "바코스의 여신도들" 하지만 다른 소설이나 영화를 가져와도 좋을 듯. 으헉헉헉 잘 모르겠다.	
본문2	내 경험 분석. 여성에 대한 혐오나 욕망 속에는 여성이 없다. 질문이 목적인가. 포르노그래피의 공유가 목적인가? 이 "조공팔" 문화는 둘 다를 충족시킨다. "조공팔"을 이용해 자신의 게시물을 더 많은 사람이 보도록 '광고'를 하는 이 모습은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끝없이 전시하며 상품을 팔아치우는 이 자본주의적이며 가부장적인 사회의 축소판이다. 이때, 상품과 함께 여성 역시 상품이 된다. 또한 "조공팔" 문화는 포르노그래피를 공유하며 서로 감상 댓글을 다는, 남성이 주류인 인터넷 커뮤니티의 대표적인 놀이 문화의 한 변형이라 할 수 있다. 이때 여성의 몸은 "조공"할 수 있는 것이다. 물신화된 여성의 몸은 남성의 재산이다. 그들은 서로 포르노그래피를 공유하며 즐겁게 남성 연대감을 표현한다.	
본문3	"적자생존", 즉 강한 남성이 살아남는다는 것은 정복자, 승리자가 항상 옳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이 여성이 남성의 것으로 당연시되는 사회의 이데올로기이다. 미즈가 말하듯, "이런 종류의 과학을 수용하는 이들은 파시즘이나 제국주의도 수용할 것이라는 점을 우리가 알지 못하겠는가?"	
결론	잘 내려봅시다...	
기타사항		

[기획안] 제목은 미정

소재	낭만적 사랑, 연애 관계 내에서의 권력 관계, 고정적인 성역할.	
기획의도	한국 사회 혹은 현대 사회에서 지나칠 정도로 낭만화 되어있는 사랑, 연애라는 공간, 관계 내에서 개인이 경험하게 되는 권력 관계와 왜곡된 연애상, 성역할을 살펴보고 고찰해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보고 싶습니다.	
글의 종류	에세이와 칼럼 중간 정도.	
글의 느낌 /분위기	불편한 이야기를 편하게 할 수 있는 분위기. '글을 읽고 난 후에 이런 사람도 있구나. 이 사람 말이 진짜 맞나? 라는 생각이 조금은 오래 남아 있으면 좋겠다.'	
주제	연애 관계 내에서의 <u>비틀린 권력 관계</u> , <u>낭만적 사랑</u> 과 연애 관계 내에서의 <u>성역할</u> . <i>왜곡된</i>	
자료조사	취재	실제 연애 경험, 연애 관계에 대한 생각을 묻는 인터뷰가 필요할 가능성 有. 노래 가사, 드라마, 영화 등 직관적으로 의미를 드러내 보일 수 있는 자료 수집 필요.
	칼럼	<i>6:03</i> <i>연애의 거</i>
구성		
인트로	권력과 낭만의 사전적 의미 살펴봄. 협회의 권력이 아니라 일상적인 권력을 지칭하며, 보통 우리가 피부로 느낀다고 표현할 만한 권력 관계를 살펴보자. 낭만이라는 껍데기 속에서 썩어가는 사랑(가족, 가정이라는 단어도 비슷하다고 언급할 수도.) <u>'오 나의 귀신님'</u> 캡처 사진 삽입 - <u>전복되어있는 성관계 혹은 정조 관념에 대한 성역할, 위치 소개</u> <i>극락당생</i> <i>권력관계가 연애가 순화시킨</i> <i>박보영</i>	
본문1	연애 관계에서 소위 '쿨'하다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특이한 권력 관계. (미안해요 고마워요, 즐거웠어요, 산뜻하게 헤어져요, 질척이지말고, in 자우림 [카니발 아무르]) 가장 진실하고 순수하다고 여겨지는 사랑, 연애라는 공간을 비틀고 썩게 만드는 외부 요인들 - 경제력, 외모, 지위 등 개인이 가지는 자본에 의한 권력 관계. 밀당, 나쁜 남자 등을 이상화, 낭만화 하는 사회 분위기 상대방을 위한 감정 노동, 정성과 자기 확대 사이에서의 줄다리기	
본문2	권력 관계를 왜곡, 심화시키는 1) <u>낭만적 사랑</u> 이라는 프레임 - 사랑은 원래 그런거야. 연애 관계는 개인의 문제이고, 있는 해들의 불평일뿐. 2) 연애 관계에서 기초 세팅으로 여겨지는 고정적인 성역할 - '남성은 항상 자신 감에 차서 여성을 리드해야해!', '여성이 먼저 성관계를 원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	
본문3	(여력이 된다면) 이런 얘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한번 들려줘보았습니다. 누가 어떤 반응을 하는지, 왜 그런 반응을 하는지, 나름의 근거(공부가 필요)에 기반해 그 이유나 맥락 설명. 이렇게 다양한 반응 속에서 주제에 대한 여러 관점을 좀 더 깊이 살펴봄.	

결론	당연하지 않은 일상적인 권력과 왜곡되고 지리한 인식들이 아직까지 우리 내외에 차고 넘친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불편하게 사는 것, 권력을 느끼는 사람이 유별나지 않은 세상이 오면 좋겠다. 이러한 고민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한명쯤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것도 나쁘지 않잖아요?
기타사항	결론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더 필요할 듯. 가사, 영화, 드라마 대사 등을 인용하고 인터뷰를 삽입하는 부분에 대한 조정. 관련된 이론 혹은 근거들을 발췌할 학술 자료 공부 필요.

[기획안] 가려진 몸 재현하기 - 여vs남이 아닌 여&남으로

소재	신자유주의시대의 몸 재현	
기획의도	현재 나타나고 있는 몸에 대한 주류적 관심사는 '몸 가꾸기'이다. 몸 가꾸기의 핵심은 결국 남에게 선택받을 가능성을 높임으로서 스스로의 선택권을 넓히려는 전략에 있다. 여기서 '선택받는 몸'이란 더욱 남성이라 생각되는 몸과 더욱 여성이라 생각되는 몸으로 인정받은 몸을 의미한다. 같은 맥락에서 모든 사람들을 이 극단화된 상으로 내몰리며 아름다운 남녀가 서로를 선택하는 모습만을 절대화하여 재현하는 동시에 다른 모습들은 재현의 영역에서 배제시킨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주의를 중심으로 외모평가를 그만두고 몸의 다양한 상을 형성해야 함을 주장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으나 "남성들은 얼굴 예쁘고 몸매 좋으면 환장한다." "여성들도 잘 생기고 몸 좋은 남자에 더 많은 관심가지면서 피해자 코스프레 하고 있다." 라는 여성 vs 남성의 양상이 무한 반복될 뿐 깊은 논의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무엇이 우리들의 몸을 가리고 있는지 밝혀 여성 vs 남성이 아닌 여성 & 남성으로 나아감으로서 가려진 몸이 재현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여성과 남성뿐만 아니라 그 사이에 놓인 수많은 젠더정체성이 재현될 수 있도록 다양한 몸의 상이 필요함을 보이고자 한다.	
글의 종류	원인 분석, 방법 모색, 고민하는 글, 제안하는 글	
글의 느낌 /분위기	진지한 분위기, 여성과 남성이 모두 공감할 수 있는 느낌으로(까지는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TT 잘 안 된다면 하고자 했던 말을 잘 담는 것으로 선회를...)	
주제	신자유주의 하에서 결정되는 이상적의 몸과 그 이상적 상의 해체를 통한 가려진 몸 재현	
자료조사	취재	X, 필요시 인터넷을 통한 사례 수집
	칼럼	필요한 글들을 열심히 찾아볼게요 TT TT
구성		
인트로	현재의 한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몸 가꾸기' 열풍을 제시하고 그 양상이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지 제시한다.	
본문1	인트로에서 제시한 '몸 가꾸기' 열풍이 왜 등장했는지 원인을 밝힌다. 20세기 말	

	신자유주의라는 형태로 재등장한 자유주의가 우리의 삶을 어떤 식으로 변형시켰는지 밝히며 현재의 몸 가꾸기의 모습이 왜 나타나고 있는지 설명한다.
본문2	인트로에서 제시했던 몸 가꾸기의 양상을 다시 끌어내어 '남성'이라는 상과 '여성'이라는 상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공고화되는지를 밝히고 이것이 만들어내는 '몸 가리기'라는 문제를 보인다. 또한 이러한 문제에 대해 다양한 몸의 상에 대한 논의를 소개한다.
본문3	다양한 몸의 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에서 비롯된 외모평가에 대한 논란 속에서 갈등만을 반복하는 여성과 남성의 모습에 대한 고찰을 통해 여성과 남성이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한다. 또한 다양한 몸의 상을 만드는 것으로서 이상적인 상에 가까이 가지 못한 수많은 가려진 몸들이 다시 재현될 수 있음을 밝힌다.
결론	기존의 여성과 남성 사이에 발생해왔던 갈등이 실상 서로의 이야기가 같음을 인지하지 못한 채 달려온 허구적인 평행선이었음을 밝힌다. 같은 맥락에서 이 글에서 언급한 외모평가에 대한 논란에서의 갈등을 해결함으로써 여성과 남성 모두 '더 여성스러운 몸'과 '더 남성스러운 몸'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으며 몸에 대한 상상력이 다양해질수록 기존의 몸의 모습들에 갇히지 않고 다양한 정체성의 몸들이 스스로 자신을 드러내고 동시에 재현될 수 있음을 주장한다. 결과적으로 다양한 몸의 상을 만드는 일에 동참하도록 제안하며 글을 마무리한다.
기타사항	- 제가 작성한 내용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러 전문적 자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혹시 생각나는 책이나 칼럼이 있으면 무한 추천을 부탁드립니다 ㅎㅎ (결코 편하게 가려는 속셈 아님...이미 들켰나...ㅋㅋ) - 글이 여러 내용을 포괄하게 될 것 같은데 혹시 연결이 잘 되지 않을 것 같다거나 빼도 좋을 것 같은 내용이 있다면 언제든지 비판해주세요. - 글재주는 별로 없지만 열심히 써보겠습니다.

[기획안] 글 제목-미정

소재	성을 다룬 과학적 논문들
기획의도	처음에 제가 하고 싶었던 것은 성에 대한 고정관념을 반박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들을 제시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되도록 실험을 한 논문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논문들을 찾을 수 있을지 약간 걱정이 되네요. 오히려 고정관념을 지지하는 논문들이 지배적이면..좀 난감할 것 같네요. 잘 찾아보긴 할 건데...흠흠 ㅠㅠ 글에서 다룰 주제는 아직 미정이에요. 성 고정관념을 반박하는 데에만 집중을 할지, 아니면 다른 이슈들도 같이 소개할지, 아니면 아예 주제를 다른 이슈들로 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가 염두에 두고 있는 다른 이슈는, 성 소수자나 젠더화 되는 과정 등등입니다.
글의 종류	논문 리뷰 느낌?
글의 느낌 /분위기	무겁지는 않을 것 같아요
주제	성에 대한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는, 혹은 기존의 알고 있던 것에 대한 과학적 증거를 확인할 수 있는 글
자료조사	취재 논문을 찾기

	칼럼	
구성		
인트로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성 고정관념에 대한 성찰	
본문1	논문 1	
본문2	논문 2	
본문3	논문 3	
결론	이렇다고 합니다..	
기타사항	흥미로운 논문을 찾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기획안] 내가 고자라니!

소재	무성애자	
기획의도	동성애/양성애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논의가 되는 것 같은데 무성애에 대해서는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	
글의 종류	설명하는 글	
글의 느낌 /분위기	진지한 분위기	
주제	무성애자란 무엇인가!	
자료조사	취재	

	칼럼	http://www.huffingtonpost.com/2013/06/17/asexuality-the-x-in-a-sexual-world_n_3444417.html 미국 허핑턴 포스트
구성		
인트로	무성애자란? 무성애자에 대한 정의	
본문1	무성애는 장애인가? 과학적으로 살펴보는 무성애	
본문2	무성애자들의 사랑, 연애, 섹스	
본문3	무성애자들에 대한 차별, 추행	
결론	방황하는 무성애자들이여 모여라! 무성애자들의 미래	
기타사항	허핑턴 포스트의 글을 많이 참고할 것 같은데 허핑턴 포스트에 먼저 허락을 받아야겠죠?	

[기획안] 권력관계와 페미니즘(가제)

소재	페미니스트의 존재 의의, 역할 등
기획의도	예전에 왜 페미니즘이란 단어가 존재하는지에 대해 질문을 받은 적이 있다. 단순히 페미니즘을 여성 우월주의, 여가부의 지지자라고 알게 되는 잘못된 사회 현상 때문이다. 그런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다보면 자신도 모르는 여성혐오나 성적 불평등에 대한 생각을 내재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글을 통해 페미니즘의 정확한 정의와 내가 생각하는 페미니스트, 그리고 여성혐오를 권력관계의 측면에서 다뤄보고자 한다.
글의 종류	아마 논설문 형식.
글의 느낌 /분위기	전체적으로 사례 중심과 의견 중심으로 진행하지만 가독성이 좋은 방향으로 글을 쓰고 싶습니다.
주제	페미니스트는 사회나 사람사이에서 필연적으로 존재하는, 미시권력의 젠더상의

	약자에 대한 무의식적 인식을 꼬집어 주는, 성적 평등을 지향하는 사람들이다.	
자료조사	취재	google.com
	칼럼	여성혐오에 대한 칼럼들/ 미셸 푸코의 성의 역사, 여성혐오를 혐오한다, 헤겔과 사르트르의 권력개념의 기초를 참조할지도...
구성		
인트로	많은 사람들이 여가부와 페미니즘을 동일시하고 페미니즘의 필요성에 의문을 갖는다. 이미 상당한 성 평등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다.(사례중심)	
본문1	나는 여성 혐오가 아닙니다? 여성 혐오란 무엇인가 - 여성혐오가 생겨난 배경, 젠더질서 상의 여성혐오의 재정의 - 우리 사회 속의 여성혐오현상(다른 분이 이미 다루셨기에 가볍게 다루고자 합니다.)	
본문2	시선을 통한 타자의 대상화로 인해 권력관계가 성립된다. - 이 사회에서 우세적으로 시선의 대상이 되는 젠더는? - 어벤져스의 인터뷰(여성과 남성에게 대표적으로 묻는 질문의 반전) - 대상화된 타자는 스스로 자기혐오를 갖게 된다는 점에서 본문 1과의 연결	
본문3	페미니스트란? - 이런 사회와 사람사이에서 권력이 존재 한다면 젠더질서에서도 권력이 존재할 것이다. 이를 꼬집어 주는 사람이 페미니스트라고 생각한다. - 페미니스트의 재정의, 역할	
결론	서로 다른 젠더를 가진 사람과 사람사이에서도 서로 다른 젠더상의 권력관계가 존재한다. 또한 사회상에서도 큰 젠더질서상의 차별이 존재한다. 무의식적으로 이를 꼬집어 남성우월, 여성우월이 아닌 성적 평등을 지향하는 것이 젠더질서상의 페미니즘의 역할이다.	
기타사항	사회의 발전으로 인해 남성과 여성 개개인의 관계에서는 여성이 미시권력의 우위에 서는 일도 찾아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언급하고 싶네요.	

[기획안] (제목 미정)

소재	'백합물' 애니메이션에서 다루어지는 여성 캐릭터
기획의도	기존의 애니메이션에서 여성 캐릭터는 단순히 '남성의 보호본능을 자극하는 연약한 존재'라는 남성 중심의 판타지를 확대/재생산하는 역할, 혹은 자신의 여성성을 떨쳐내고 명예남성이 되어 강인한 존재로 발돋움하는 역할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소녀혁명 우테나', '마법소녀 마도카☆마기카', '유리쿠마 아라시' 등의 소위 '백합물', 여성 캐릭터 간의 유대와 사랑에 초점을 맞추며 남성 캐릭터가 배제되어있는 환경에서는 다르다. '백합물'은 단순한 남성들의 레즈비언 판타지로 소비되는 양상에서 벗어나 새롭고 입체적인 여성 캐릭터 묘사를 보여주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차이를 분석하고, 이 현상의 긍정적인 면, 그리고 한계를 알아보려고 한다.
글의 종류	분석하는 글...?

글의 느낌 /분위기	- 애니메이션을 소재로 다뤘지만 너무 가볍게 읽히지만은 않게 진지한 어조로 - 언급된 애니메이션을 본 사람은 공감하고 더 재미있게 읽을 수 있도록	
주제	'소녀혁명 우테나', '마법소녀 마도카☆마기카', '유리쿠마 아라시' 등 소위 '백합물'이라는 장르에 포함되는 애니메이션에서 나타나는 여성 캐릭터의 묘사와, 이러한 장르에서 나타나는 동성애 코드와의 연관성, 기존의 이성애/남성 중심적이던 캐릭터 묘사와의 차이점 등	
자료조사	취재	X
	칼럼	맥을 같이하는 해당 애니메이션들의 리뷰나 관련 글을 열심히 찾아볼게요...!
구성		
인트로	기존 애니메이션(로맨스물, 소년만화 등)에서의 평면적인 여캐 묘사에 대한 지적, '백합물' 장르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설명.	
본문1	사례 1) '소녀혁명 우테나' 동성애 코드, 주인공인 '텐조 우테나'의 의도된 남성성과 결말부에서의 반전, 제목인 '소녀혁명'의 의미 등.	
본문2	사례 2) '마법소녀 마도카☆마기카' 기존의 '마법소녀물'에서 등장하는 별도의 남성 주인공이 없(거나 여성 캐릭터로 대체되어 있)음으로써 발생하는 여성 캐릭터 묘사의 차이, 타 '마법소녀물'의 캐릭터들과의 인물상 비교, '미키 사야카'의 경우 유일하게 이성애적 코드에 묶여있는 캐릭터인데 이 캐릭터의 묘사가 어떤 식으로 표현되는지.	
본문3	예시 3) '유리쿠마 아라시' 작품 전면에 내세워져 있는 동성애 코드와 주인공 3인방의 캐릭터성에 대한 분석, 기존의 이성애를 다루었던 애니메이션에서 다루어진 여성 캐릭터의 캐릭터성과의 비교, 나타나는 차이점과 동성애 코드 간의 연관성.	
결론	기존의 작품에서 여성 캐릭터는 보통 메인인 남성 캐릭터의 연애 대상 등 남성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그려지고 필연적으로 평면적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남성 캐릭터가 배제되어있는 '백합물'의 세계 안에서 여성 캐릭터는 훨씬 주체적이고 입체적으로 그려진다. 하지만 이는 남성 캐릭터를 완전히 배제했을 때라는 한정된 환경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미키 사야카) 따라서 기존의 세계관에서도 여성 캐릭터의 주체성이 확보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언급.	
기타사항	- 너무 수박 겉핥기 식으로 이야기하게 될까봐 겁이 나네요... ππ 해당 애니를 보신 분이 혹시라도(!!!) 계시다면 피드백 주시면 감사합니다! - 글을 쓰다가 사례를 추가/삭제/변경하거나 '백합물'에서만 그치지 않고 다른 장르까지 나아가서 사례를 들게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아직 완전 초안이라서 많은 수정이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기획안] "이것은 왜 폭력이 아닌란 말인가?"

소재

성폭력

기획의도	성폭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일상적이고, 빈번하게 일어나지만, 그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는 비난받을 만한 폭력이라는 것이 피해자와 가해자 그리고 제 3자의 관계에 따라 다르게 규정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피해자와 가해자, 그리고 제 3자들이 감정적, 정치적으로 복잡하게 얽혀있는 경우, 이 성폭력 사건은 '온전히' 처리될 수 없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듯 마치 일상의 한 부분처럼 가려진 성폭력을 우리가 얼마나 간과하는지, 혹은 묻어두는지 지적하고 이에 대한 비판점들을 성찰하고자 합니다.	
글의 종류	분석, 설명	
글의 느낌 / 분위기	기본적으로 비판적인 어조입니다.	
주제	"이것은 왜 폭력이 아니란 말인가" - 성폭력을 성폭력이라고 외치지 못하는 현실 지적	
자료조사	취재	기사와, 책의 사례 참고
	칼럼	신문
구성		
인트로	최근 회자가 된 사건들을 나열하며, 이것이 일상적이고 개인적의 윤리적 결함으로만 치부되는 현실과 사실은 그 안에서 보이지 않게 작동되는 구조와 권력 관계가 있음을 주장하며 이를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3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다루어보고자 합니다.	
본문1	우리사이에 어떻게 ..? - 본문 1에서는 연인 관계, 혹은 친밀한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성폭력을 중심 내용으로 하여 이들 관계에서 폭력이 어떤 방식으로 다뤄지는지, 왜 그런지 다루려고 합니다.	
본문2	정의를 말하면서 어떻게..? - 본문 2에서는 민주 사회를 꿈꾸었던 운동권, 진보진영에서 발생한 성폭력의 역사를 짚으며 그 모순에 대해 지적하고자 합니다.	
본문3	믿는다면서 어떻게..? - 본문 3에서는 종교진영에서 일어난 성폭력 사건을 중심 내용으로 하여, 신앙의 이름으로, 혹은 집단이 어떻게 성폭력 사건을 묻어두려 했는지 짚어보고자 합니다.	
결론	이를 종합하여, 성폭력이라는 것이 사적인 관계적 경험으로 치부되는 현실을 다시 한 번 짚고, 나아가야할 방향성 제시.	
기타사항	엄기호씨 "이것은 왜 청춘이 아니란 말인가" 제목 땀는데 안 되면 다시 고려해보겠습니다.	

소재	feminism in movies	
기획의도	3주차 세미나, 영화로 보는 성역할과 여성의 주체성 이후에 페미니즘 영화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보고 싶어서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화라는 대중적인 매체를 통해 페미니즘을 설명하면 독자에게 조금 더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글의 종류	페미니즘 영화 소개, 분석, 영화를 통해 페미니즘이 가진 다양한 면모들을 도출	
글의 느낌 /분위기	객관적 정보(영화 소개), 영화 관련 분석글 인용(영화 평론글), 그에 대한 필자의 주관적인 생각.	
주제	페미니즘 영화를 통해 본 페미니즘의 다양한 모습	
자료조사	취재	
	칼럼	
구성		
인트로		
본문1		
본문2		
본문3		
결론		
기타사항		

소재	한국식 페미니즘	
기획의도	인터넷에서 페미니즘에 관해 설전할 일이 생기면 꼭 '페미니즘은 반대하지 않지만 한국식 페미니즘이 싫다.' 라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에게 대체 한국식 페미니즘이 뭐냐고 물어보면 여가부, 더치페이, 김치녀 등의 단어만 읊어대지 누구도 정확히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한국식 페미니즘'을 하는 것인지, 그게 왜 페미니즘이라고 부를 수 있는지 설명하지 않았다. 물론 페미니즘은 각 나라에 소개된 후 다양한 모습을 보이며 발전해나간다. 그러나 '한국식 페미니즘' 운운하며 비판하는 사람들은 실제 페미니즘에 관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요소들만 모아둔 '한국식 페미니즘'이라는 모호한 유령을 가져다두고 비난을 위한 비난을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따라서 일부 사람들이 주장하는 '한국식 페미니즘'이란 무엇인지, 이 논리의 어떤 점이 잘못되었는지 짚어보고 페미니즘과 페미니스트에 대한 오해를 풀고자 한다.	
글의 종류	분석글	
글의 느낌 /분위기	너무 공격적인 글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 같아요.	
주제	한국식 페미니즘에 대한 탐구와 페미니즘 오해 풀기	
자료조사	취재	x
	칼럼	(칼럼은 아니지만) 위키, 여성가족부와 여성단체 홈페이지, 논문, 기사 등을 참조할 예정입니다.
구성		
인트로	(자료 첨부-웹툰 '마음의 소리' 중 소개팅 상대로 나올 최악의 여자 특징으로 페미니스트가 들어간 장면) (발췌-김태훈 'IS보다 무뇌아적 페미니즘이 더 위험해요.') 한국 사회에서 페미니즘과 페미니스트가 부정적인 뉘앙스를 지닌 채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지적. 이런 페미니즘은 기존 페미니즘이 아닌 부정적인 '한국식 페미니즘'으로 칭해짐. 한국식 페미니즘에 대해 알아보고 페미니즘에 대한 오해를 풀고자 함.	
본문1	'한국식 페미니즘'이란 무엇인가? -(자료 첨부-'남성부 닷컴'에 올라온 '한국식 페미니즘 요약') 즉 이들이 생각하는 한국식 페미니즘이란 '좋은 것은 여자가, 나쁜 것은 아몰랑!' 정도로 요약 가능함. 그 예로 결혼 시 남성의 경제적 부담이 더 큰 것, 연인이 식사 시 남성이 식사비를 다 내는 것, 여자들은 군대 안 가는 것, 여성 가족부가 사소한 일에 예산을 낭비하며 쓸데없는 일을 한다는 주장을 들 수 있음. 한국식 페미니즘에 대한 설명.	
본문2	남성이란 이유로, 여성이란 이유로 -성평등주의로서의 페미니즘 정의 소개. 즉 남성이라는 이유로 경제적 부담을 짚어지는 것은 페미니즘이 주장하는 것이 아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에서 남성이 경제적 부담을 과도하게 짚어지는 이유를 남성과 여성의 임금 격차, 여성의 경력단절과 직장 내 차별로 드러나는 사회 구조적 문제와 경제 주체로서의	

	남성상을 성립한 전통적 유교 사회의 영향을 들어 분석.
본문3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 이름, 여성 가족부 -여성 가족부가 하는 일, 그간 벌여온 사업, 여성 가족부에 대한 오해
결론	"페미니스트라는 이름은 '혐오의 대상으로서의 텅빈 기표'이며, 불만스러운 것은 뭐든 '페미니즘' 안에 들어갈 수 있다" (손희정 여성문화이론연구소 편집위원) '한국식 페미니즘'이라는 명명으로 인해 그 동안 많은 비난과 조롱을 받아온 페미니즘이라는 단어. 이제 페미니즘에 대한 오해를 풀고 그 본질을 들여다봐야 할 차례이다.
기타사항	군대나 여성 가족부같이 논란의 여지가 많은 요소들이 많아 신중히 접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회 구조적 문제에 대해 다루는 부분은 함부로 결론 내리기 쉬운 내용이 아닌 만큼 폭 넓은 자료조사와 많은 공부가 필요하겠죠. 또 글이 잘못된 행태에 대해 무조건 옹호적인 뉘앙스를 띠지 않게 조심해야 합니다.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글을 써 가며 수정할 계획입니다.

[기획안] 글 제목

소재	페미니즘 소설에 대한 소개 및 비평	
기획의도	본인이 그동안 읽어왔던 책들 중 페미니즘을 주제로 담고 있는 소설들을 소개함으로써 페미니즘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관련 지식을 제공함	
글의 종류	설명문	
글의 느낌 /분위기	가벼운 구어체. 친구가 들려주는 책 이야기 같은 느낌	
주제	소설을 통한 페미니즘 입문	
자료조사	취재	
	칼럼	
구성		
인트로	페미니즘이란 무엇인가?	
본문1	페미니즘 소설에 대한 간략소개, 예시설명, 두 작품에 대한 소개	
본문2	핑거스미스 소개 및 비평	

본문3	프라이드 그린 토마토 소가 및 비평
결론	상기한 두 책에서 얻을 수 있는 페미니즘적 가치, 본인이 느꼈던 깨달음
기타사항	책 정보 간략하게 실을 예정

[기획안] 글 제목

소재	문화상품 속에서 그려지는 (남성) 동성애자의 모습들	
기획의도	이미 동성애자의 권리를 논하는 것은 진부한 문제처럼 비춰지는 듯하다. 그도 그럴 것이 이미 (남성) 동성애자를 다루는 문화상품들은 범람하고 있다. (오직 남성 동성애자만 재현되며, 다른 성소수자는 없는 존재로 취급된다.) 문화 상품 속에서 동성애를 다루는 지금의 방식은 한 편으로는 동성애의 가능성을 제한하고 있다. 여전히 문화 상품 속, 현실 속 성소수자에 대한 이해는 부족한 상황이다.	
글의 종류	문화비평	
글의 느낌 /분위기	그냥.... 과제글 느낌...	
주제	문화상품 속에서 그려지는 동성애의 모습과 한계를 바로보자.	
자료조사	취재	
	칼럼	
구성		
인트로	동성애자가 등장하는 교내 연극을 했을 때의 에피소드.	
본문1	뮤지컬 속, 수용되고 칭송받는 (남성) 동성애의 모습과 한계	

본문2	드라마 속, 브로맨스, 남장 여자였거나 사라지는 동성애의 모습과 한계
본문3	커밍아웃한 유일한 방송인인 홍석천이 "웃기는", 동성애"자"로 다뤄지는 모습과 한계
결론	성소수자에 대한 이해와 좀 더 정당한 재현은 여전히 당면하고 있는 과제이다.
기타사항	

[기획안] 수저 한 벌

소재	정상가족과 비정상가족? ...그게 중요해?	
기획의도	사회가 규정하는 소위 '비정상가족'으로 살면서 그건 아무렇지 않은 것이라 생각 해왔지만, 우리 가족도 '정상'이란 걸 열망해왔다는 걸 문득 느낀 개인적인 경험 에서 출발해 '정상'에 얽매인다는 것을 성찰할 수 있는? 혹은 그것에서 자유로워 지자는 글을 쓰고 싶단 생각에서 기획하게 되었어요.	
글의 종류	에세이	
글의 느낌 /분위기	가볍고 고백적인 글이 될 거 같아요.	
주제	'정상'이라는 프레임에 너무 연연하지 말자	
자료조사	취재	사실상 이혼 상태인 가정에서 20년을 살다 그걸 이제 알게 된 걸 저에게 털어냈던 친구를 인터뷰해볼까 고민 중이에요
	칼럼	...어떤 칼럼을 참고해봐야 할지 모르겠네요. 공지영의 소설 「즐거 운 나의 집」을 한번 참고해볼까 생각 중이에요.
구성		
인트로	식사 시간, 수저를 놓다 평소에 쓰던 것과 유일하게 다르게 생긴 수저 한 벌을 어머니 편에 놓았을 때 돌아온 대답 "그건 네 수저잖아." "? 왜 이게 내 건데?" "뭘 새삼스레 그래, 그거 네 거잖아. 몰랐어?" "진짜? 아니, 근데 이게 왜 내 거냐 니까?" "그야, 네 아버지 쓰던 거니까."	
본문1	이토록 정상에 얽매이는 우리들. 사회가 요구하는 정상가족의 모습을 꼬집어본 다.	

본문2	정상가족의 이면. 정상가족이란 걸 지키기 위해 너무 많은 걸 희생하고, 참고 있진 않나요? + 친구 인터뷰(가능하다면)
본문3	다양한 가족의 모습(대안가족?) 굳이 정상가족이어야만 해? 그게 아니라도 행복할 수 있잖아? + 공지영 「즐거운 나의 집」 참고
결론	수저 한 벌. 단정해보이죠. 하지만 우리 가끔 상에 떨어진 건 손으로 집어먹기도 하고 포크수저를 쓸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우리 '정상'에 그렇게 연연하지 않아도 될 거 같아요.
기타사항	

[기획안] 글 제목

소재	성적 자기 결정권	
기획의도	수많은 사람들이 한국사회는 남녀평등한 시대라고 말한다. 오히려 남성들이 역차별받는 사회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실상을 살펴보면 과연 그럴까? 오늘날 한국사회의 성차별과 성폭력의 실상을 파헤치고 문제의식을 제기하려 한다.	
글의 종류	자유	
글의 느낌 /분위기	쉽게 읽히지만 마냥 가볍지만은 않은 글이었으면 좋겠다.	
주제	한국사회의 성차별, 성폭력에 대한 인식 비판	
자료조사	취재	뉴스 기사
	칼럼	관련매체들을 찾아볼 예정
구성		
인트로	한국 사회의 여성혐오 기사, 사례 등을 소개	
본문1	여성혐오를 기반으로 하는 성차별 문제	

본문2	성폭력 문제
본문3	
결론	비판과 사람들의 의식변화촉구
기타사항	지금 뭔가 굉장히 뒤죽박죽인 느낌이라 다시 좀 더 깔끔하게 다듬고 세분화하는 과정이 필요함.

[기획안] 어디에나 있고, 아무데도 없다. 여성혐오

소재	온라인 상의 (한국)여성혐오 현상	
기획의도	한국인(男)-한국인(女) 결혼 비율이 92.4%(2014년 기준)인 대한민국. 이처럼 겉으로 봤을 때는 서로에 대한 호감만 가득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현재 온라인에서 나타나는 한국여성혐오 현상은 통계와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 나타나고 있는 여성혐오 현상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이 갈등을 풀어나갈 수 있을지 차근차근 알아보자.	
글의 종류	분석!	
글의 느낌 /분위기	「그것이 알고 싶다」식으로 하나하나 알아보는 느낌!?	
주제	온라인에서 나타나는 (한국)여성혐오 현상과 그 이유를 알아보자. 그리고 이 갈등을 풀어나갈 근본적인 방안을 궁리해보자.	
자료조사	취재	google.com
	칼럼	google.com
구성		
인트로	김치녀, 된장녀, X슬아치, 삼일한, 보적보 등 온라인에서 여성혐오, 특히 한국여성혐오 관련 용어를 빈번하게 볼 수 있다. (여성혐오 현상)	
본문1	한국남성들이 한국여성을 혐오하는 이유1 (조사)	

본문2	한국남성들이 한국여성을 혐오하는 이유2 (조사)
본문3	한국남성들이 한국여성을 혐오하는 이유3 (조사)
결론	성 갈등을 풀 해결책!! (조사)
기타사항	google뿐만 아니라 다양한 채널을 통해 많은 이들의 의견을 읽겠습니다. 성 갈등은 민감한 사항이므로 남성이든 여성이든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게끔 균형잡힌 글을 쓰겠습니다.